2022.04.06

Daishin Research Center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Daishin Research
Morning Meeting Brief
2022.04.06

섹터	제목	작성자
Macro	한국 CPI 상승률, 석유류 영향으로 4% 돌파	이다은
IPO	IPO 시장 동향과 전망(2022.4월호)	박세라
[산업 및 종목 분석]		
현대제철	[1Q22 Preview] 원가 부담은 있으나, 판가 상승 가능한 환경	이태환
SBS	[1Q22 Preview] 이런 실적은 처음이야	김회재

Report Click ▶

Macro

한국 CPI 상승률, 석유류 영향으로 4% 돌파

이다은 daeun.lee@daishin.com

-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1%(전월대비 +0.7%)로 예상치(+3.9%)를 상회. CPI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 이번 달은 다른 요인들 보다도 석유류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석유류 가격이 +31.2%(전월대비 +13.8%) 상승.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여도가 크게 확대. 다만, 4월부터 전년도 기저 영향이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유가 수준(3월 WTI 평균 108달러/배럴)을 유지하더라도 상승폭은 완만하게 축소될 전망

- 문제는 변동성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성이 높은 개인서비스(외식) 가격이 원재료비 상승으로 상방 압력이 가중. 지난해 3~4분기부터 외식가격 오름세가 강화된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2분기까지는 현재의 상승세는 유지. 4월부터는 리오프닝 영향으로 외식뿐 아니라 외식 외 개인서비스(예: 여행비) 가격 상승세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

- 더불어 가공식품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반영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음. 3월 가공식품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 영향으로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향후 가공식품 오름폭은 완만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 석유류 영향 축소에도 불구하고 공공용금 인상 및 기조적 물가 상승세를 감안할 때 2분기에도 4%대 물가상승률 이어갈 전망.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오름세를 지속하며 3% 상회할 것으로예상

Report Click ▶

미래산업

박세라 sera.park@daishin.com

IPO 시장 동향과 전망(2022.4월호)

- 2022년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인상 과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공모주 시장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분기 IPO 시장은 증시하락으로 비우호적인 환경이었지만 산업재, 소재, IT 섹터의 경우 수요예측과 주가 수익률이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 1분기 IPO기업수는 23개사(-28.1% YoY), 공모금액은 13.2조원(+372.5% YoY)을 기록했다. IPO기업수는 감소한 반면 공모금액의 전년대비 약 4.7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이 12.7조원의 공모금액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 1분기 수요예측평균 경쟁률은 876:1을 기록하여 2021년의 1,154:1을 하회하며 기관투자자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 IPO종목들의 공모가 대비 상장 상승률 평균도 2021년의 54.4%보다 10%p 이상 낮아진 43.9%를 기록하며 둔화되는 모습이다

- 2분기 공모주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지만 ②분기는 계절적으로 IPO흥행 성과가 좋은 시기라는 점과 ③분기 큰폭의 주식시장하락으로 2분기 이후 반등이 예상되는 점에서 IPO흥행 수준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 1분기 주요 상장청구 종목으로는 쏘카, 컬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첫 상장사로 나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이커머스 기업인 컬리의 상장은 IPO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Report Click ▶

현대제철 (004020)

이태환 taehwa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8,000 유지
현재주가 (22.04.05)	41,200

원가 부담은 있으나, 판가 상승 가능한 환경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58,000원 유지

- 1Q22 연결 실적은 매출액 6조 6,845억원(+35.7% yoy), 영업이익 5,487억원(+80.5% yoy), 영업이익률 8.2%(+2.0%p yoy) 전망. 컨센서스 대비 당사 전망치는 매출액 +13.0%, 영업이익 -9.4% 하회
- [별도] 매출액 5조 9,141억원(+39.1% yoy), 영업이익 5,525억원(+86.3% yoy) 전망
- 전분기 대비 고로 마진 4.2만원/톤 축소, 전기로 마진 1.2만원/톤 확대 전망 (고로: ASP -2.0만원, 원가 +2.2만원 / 전기로: ASP +4.0만원, 원가 +2.8만원)
- 분기 판매량은 475만톤 내외 예상. 1)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한 자동차 물량 정상화 지연, 2) 3월 중대사고 발생에 따른 일부 설비 조업중단 등을 반영
- 1분기 원재료 가격 급등은 2~3분기 본격 반영 예정. 동사는 판가 인상 가능성 높은 자동차강판 매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마진 방어에 용이할 전망
- 봉형강은 성수기 진입 및 대선 종료 이후 건설 착공 증가 기대감 형성. 한국특강이 철근시장 진입 앞두고 있으나, 동사의 타깃 고객과 달라 영향 제한적일 것

Report Click ▶

SBS (034120)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6,000 유지
현재주가 (22.04.05)	45,800

이런 실적은 처음이야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76,000원 유지

– 1Q22 Preview: 매출 2.6천억원(+41% yoy), OP 340억원(+3% yoy) 전망. TV 광고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호실적 전망. 3Q20~4Q20에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료 등 약 1.5천억원 선반영. 1Q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권료 약 70억원 미반영, 4Q22카타르 월드컵 중계권료 550억원 미반영. 경상 OP 기준 1Q 270억원

– 22년 실적 전망: TV 광고시장은 21년 +18% 성장했고, 22년에도 +6% 성장 전망. TV 광고시장 반등과 SBS의 편성 효율화에 힘입어 21년부터 경상 OP 기준 분기 250~300억원 수준 달성 중. 연간 경상 OP 21년 837억원, 22E 947억원 전망. 이익에 맞는 주가 수준은 최소 6만원

– OTT 적극 활용: 과거와 달리 OTT와 적극 협업. 연간 20개까지 편성되었던 드라마는 21년 12개, 22년 8~10개 정도 편성 예정. 그 대신 OTT 적극 활용. 화제성을 몰고 온 〈그 해 우리는〉과 〈사내 맞선〉은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 기타 OTT향 오리지널 드라마도 제작 중

–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을 스튜디오S에 집중시킴으로써 제작 능력을 확대시킨 후 22년말 경에 Pre-IPO 진행하면서 SBS의 기업가치도 동반 상승 전망. 스튜디오드래곤의 21년 제작 편수당 시가총액은 약 1.1천억원 수준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